

2004년 양계산업 전망

* 새란업

최근 새란업은 경기침체로 소비가 감소하여 어려움이 커졌다. 생산은 노계 환우 사용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사육규모가 유지되고 있어 계란 공급과잉으로 난가 하락 폭이 커서 농가들의 소득이 낮아져 적자에 허덕이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생산비는 낮아지지 않아 농가들의 시설 투자비를 감안하면 어려움이 커서 가급적 농가들은 사육규모를 늘리고 있고, 자금난으로 생산성이 저조한 노계를 최대한 사용하면서 불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산란 종계입추는 2003년 12월초 현재 343,290수로 지난해 452,315수에 비해 약 25% 정도가 감소하였다. 입추 감소로 병아리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었지만 연초부터 강제환우계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초생추와 중추 가격이 하락하여 부화장도 채산성이 악화되었다.



김용화 회장
((사)대한양계협회)

<표 1> 연도별 계란 생산량(천개)

(단위: 천, 원/10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03	703	660	768	760	766	750	779	865	863	810	837		778
2002	981	878	894	818	889	837	774	897	1,002	780	787	789	861
2001	954	890	995	991	913	795	870	956	1,101	986	919	1,007	948
2000	695	633	540	556	535	608	718	862	1,004	899	832	874	730

2003년 하반기 경기는 3/4분기 강세에서 4/4분기로 다가서면서 다시 약세를 보여 생산성이 저하되는 시점에서 더욱 어려운 처지였고, 노계도태가 최대 걸림돌이 되어 애로사항이 많았다.

노계 도태 문제는 노계육의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향후 계속하여 문제점을 유발할 여지가 높은 편이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초생추 입추가 꾸준히 감소하여 2003년 5월 이후 실용계 생

산잠재력이 평균 10% 정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고, 2004년에도 전반기에는 큰 증가가 없을 전망이다.

이들 계군이 계란을 생산하게 되는 시점에 노계 도태를 적절히 한다면 소비가 저하되어 있다 하더라도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기간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잔알 생산량이 낮아서 시기적으로 잔알 수급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연초에는 지난해 봄계군이 증가하여 신계군은 적다하더라도 환우노계가 일정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여서 큰알 생산량은 기대치 이상 유지될 여지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육계업

2004년 상반기 역시 전년과 같이 육계업은 높은 병아리 생산 여력으로 어려움은 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종계 과도수입으로 한때 종계 생산 잠재력이 600만수대 수준에 육박한 기간도 있어 극심한 공급 과잉 현상이 계속되었으나 다행히 2003년 11월에 원종계 3사가 수입예정량 15만수대에서 7만4천수대로 낮추어 2004년 상반기 종계 분양 분부터 소폭 감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기 분양된 종계는 2002년의 84% 수준이어서 닭고기 소비 감소에 비추어 볼 때 이 물량 역시 과잉생산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실용계 생산잠재력이 월 3천2백만수대 정도로 하향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상반기에 3천7백만수대 이상이 유지될 처지여서 약 15% 정도 과잉이 예고되어 있는 셈이다.

문제는 육계업계의 어려움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사육수수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병아리 생산 잠재력 상으로 2003년 10월까지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1월부터 감소 폭이 완만해지더니 다시 3월부터 증가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은 육계 생산량이 같은 맥락으로 증가할 여지가 높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범업계적으로 수급조절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 이후 7월부터 소비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2004년도 상반기에 공급될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2002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어서 육계업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

에 대비하여 농가와 계열주체들의 원활한 수급조절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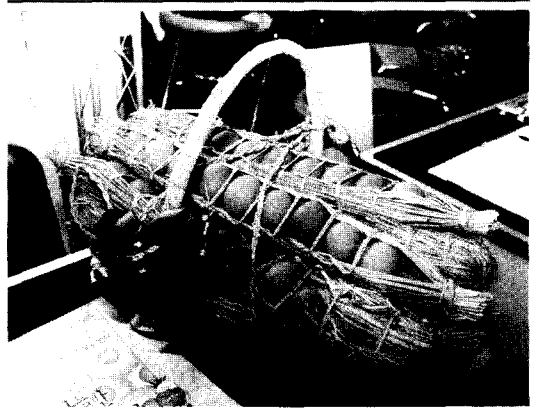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03	877	665	1,132	907	855	560	658	1,258	928	932	840		873
2002	1,539	1,258	1,658	1,460	1,295	943	853	706	696	910	920	1,029	1,106
2001	1,361	1,404	1,852	1,700	1,192	1,210	1,431	1,394	1,133	1,287	1,350	1,345	1,388
2000	1,242	1,131	1,106	1,240	1,119	1,097	1,590	1,248	1,123	1,055	953	873	1,148

✳ 계란 육계 생산 주이

2004년도에 생산될 계란과 육계 생산량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계란은 이미 고주령 노계군이 감소하는 봄 이후에는 사육수수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노계도태가 변수가 될 전망이며 계란 소비가 워낙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으므로 농가 수취 가격은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육계는 농가의 의지에 의해 사육수수가 결정되기보다는 계열주체의 사업량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장기간 불황에 시달려 적자폭이 큰 경영실적을 감안할 경우 대략 2003년 4/4분기 사



육추이와 비슷한 물량 수준을 유지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는데 계열주체들의 사육량 감소로 인하여 농가당 입추수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㉟

2004년에는 이런 소식만 듣고 싶다!

1. 양계소비 활력 찾아
양계소비 활력으로 생산비 이상의 거래가 이어져.
2. 계란가격 안정화 추세
계란가격이 점차 제길을 찾아 안정화 단계에 머물고 있다.
3. 계란 콜드체인 유통시스템 정착
콜드체인 유통시스템이 정착단계에 있어 신선한 계란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4. 육계 계열주체와 계열농기간 상호협력 구축
양계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계열주체와

계열농기간의 분쟁이 불식돼.

5. 정기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수급 원활화
양계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수급 조절에 활기 찾아.

6. 인플루엔자 박멸
지난해 하반기 발생했던 가금 인플루엔자가 완전 박멸돼.

7. 효율적인 산란계 노계처리 방안 강구
산란 노계 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안이 연 구돼 적절한 자원화로 산업 활기 'up'.